

“일주일 하루 쌀밥 안 먹는 날” 운동 확산

매년 쌀 수입으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는 인도네시아가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'일주일에 하루 쌀밥 안 먹는 날'(One Day No Rice)을 통해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. 이 운동은 2012년 자카르타 위성도시인 데벙에서 처음 시작됐고, 이어 서부자바 주(州)와 반둥 시(市)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. 리드완 까말 반둥 시장은 20일 계도기간 거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이 운동을 시작한다며, 이어 식당과 레스토랑으로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, 지방 정부들은 원활한 쌀 수급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. 처음 이 운동을 주창한 누르 마흐무디 데벙 시장은 "쌀밥에 크게 의존하는 식습관에 변화가 필요하다"며 3년 전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.

인도네시아 국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39kg으로 말레이시아(90kg), 한국(67kg)보다 훨씬 많다. 2017년까지 쌀 자급자족 목표를 세운 인도네시아는 쌀 경작지가 730만 ha 규모이며,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.

□ 시사점

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국민은 대부분의 나라보다 많은 쌀을 소비한다.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식자재 값이 급등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탄수화물 공급원을 다각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. 인니 정부가 그 동안 쌀 생산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쌀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웠다. 또한 농부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쌀 수입 금지 조치도 내렸지만 국제곡물가격이 더욱 올라 결국에는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. 한편 Global Trade Atlas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쌀을 태국, 베트남, 인도 등 인접국가에서 수입하며, 미국과 중국, 일본, 한국에서도 소량을 수입해왔으나, 2014년 이후 한국산 쌀 수입은 거의 없다.